朝鮮日報

朝夕刊合六面

新聞代金 一個月金六十錢 三個月先金一圓七十五錢
廣告料 五號活字行貳圓 四號活字行參圓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容九

社說

日本議會停會

一

二十日附로 日本議會의停會를보게되엿스니 그는政友會와政友本黨에서 不信任案을提出하엿기때문이다 停會는十五日以內에期限을定하야 命할수잇는것이니 停會를보게되는것은 政府와議會와의사이에 意見의衝突을보게되는境遇에 議會의反省을促하기爲하야 命하는것이다 必要가잇스면 一次뿐아니라 二次三次라도命할수잇는것이니 一回의停會期間은 十五日以內라는制限이잇는것이지마는 數次에亘하야停會식히는데는 十五日을넘어갈수도잇는것이니 或者는數次停會를命하야 國葬當時外지그狀態를繼續할것이라고한다

二

그러나 그러케屢次停會를行하는것은 萬不得已한事情에基因할수잇는것이어니와 普通境遇에는 一次의停會後에問題가解決되는것으로보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今番의問題의解決方法에는 短刀直入的으로 正正堂堂하게나간다면 議會의解散이거나 內閣의總辭職의두가지外에 나가지아니할것이다 卽不信任案을提出한 政友會와政友本黨은 合하야衆議院에잇서서絕對多數를차지하고잇고 不信任案에는 이兩黨의所屬代議士全部가署名하엿슨즉 兩黨이그것을固執하는바에는 그것이衆議院을通過할것은 明白한일이라 하겟스니 그와가티明白히立法府에依하야 不信任의表明을當하고는 오늘날의日本政治制度下에잇서서는 內閣이그대로妥協히그職에머물러잇슬수업는것이니 總辭職을行하거나 解散을行하거나하지아니치못할것이다

三

그러나 事態가그와가티明白하게 正面衝突로만될이라고생각하기는어려우니 그사이에잇서 여러가지로妥協的手段을取하게되지아니할수업나니 果然停會命令後에 若槻總理大臣은 兩反對黨의首領되는田中氏와床次氏와會見하고 昭和新政의初를當하야 政治의公明을바랄으로서 各其黨員을戒飭하야 言動을愼重하게할것을努力하자는覺書를交換하야서妥協이되고말엇다 政府에서는 豫算의成立을希望한다는意味로서 反對黨의諒解를求하고 反對黨에서는 政府에서도 考慮하기를바란다고하야 若槻首相은考慮하겟다는것을 應諾하엿다한다 이와가튼 三黨首의聯絡은 그사이에第三의解決方法이잇는것을暗示하는것이라하겟스니 卽兩反對黨은 한번提出하엿던不信任案을撤回하야 問題를解決하자는것을 意味하는것이라하겟다

四

그러나 한번提出하엿던不信任案을 무슨理由로서撤回할가 豫算의成立을爲하여서라는것은 表面上理由는될것이다 反對黨으로 그와가튼態度에出한다는 政府로하여금 他日에 政權을反對黨에게引渡하겟다는約束이잇기때문일것이다 그럼으로도 若槻首相의『考慮하겟다』는一語가 이와가튼默契의意味로解釋할수잇다는것이니 이와가튼 妥協苟合에依한政爭의結末은 政治道德에는것이라한다 『撤回한다면 그는日本의立憲政治의公明』으로引導하는바는아닐것이니 在野黨이만不信任案을 撤回한다면 政治道德을 重하게 지못할것이다

電車罷業은 上海回收計畫
背後에는革命軍策動

(上海十九日發) 十八日아츰부터罷業한電車從業員의數는二千餘人에及하고 十八日에運轉中의電車는楊樹浦에서毁壞되는等 交通界는大混亂에陷하엿는데 此에對하야 諸官이四起하고 租界內外의當局은取締를極度로嚴重히하고잇지만 各百貨店其他의罷業은繼起中이다 工部局電氣工場도十八日朝에待遇改善의要求를提出하엿고 水道會社의從業者도此와同樣態度에出할는지알수업는데 兩者의罷業은 모도革命軍은上海回收를計劃中이라는風說이잇고 共產黨이操縱하는形勢가보임으로 工部局方面에서는水道와電氣의罷業이잇슬것을미리豫想하고 直時應急手段을取하기爲하야 多數의白露人을雇入中이라더라

英水兵長沙上陸
中國側은抗議提出

(東京電) 英人婦女子를收容한英砲艦은十八日長沙에着港 同地英人을收容키爲하야武裝水兵을上陸식혓음으로 中國官廳은此에抗議하엿더라

英對中策支持
『로이드쪼지』氏陳述

(倫敦二十日發) 『로이드쪼지』氏는本日下院에서 意外에도現政府의對中政策을支持하야 政府는이제七十年前에『다이트』와『고푸덴』가뭇든것과同樣으로 政策을執함에至하얏스니 곳英人의生命財產의保護를切言하고 또武力을씀에는正義와人道로英國의貿易을保護함을基調로하는政策을致함에至하얏다고述하얏더라

『막스』에게 再組閣要求

(伯林二十日發) 獨逸大統領『힌덴불흐』元帥는 前國務總理『막스』에게 內閣再組閣을要求하얏다

附加稅徵收實行
各國領事에게通告

(東京電) 牛莊의中國官憲은一月十八日 各國領事에對하야 北京政府의命으로 關稅二分五厘와五分의附加稅를二月一日부터徵收할旨를通告하얏더라

歐亞鐵道聯絡
運輸時刻及料金

歐亞鐵道聯絡運輸는現在一週二回式—京城月曜日午後七時發과 火曜日奉天午後一時發로서 滿洲里로부터木曜日及日曜日에發하는데 그時刻及料金은如左하더라

一、歐亞聯絡時刻

驛名	日數	日曜	着時刻	發時刻	記
京城	一	日		後七、三〇	
奉天	二	火	後一、〇〇	後一、三〇	滿洲時
長春	二	火	後八、四〇	後一〇、四〇	同
哈爾賓	三	水	前六、二〇	同四、四〇	哈爾賓時
滿洲里	四	木	後四、三〇	同一二、〇〇	同
莫斯科	十一	木	前一一、二五	同一、〇〇	莫斯科時
스톨프드	十二	金	前八、二六	前九、三六	中歐時
왈소	十二	月	後七、一五	後九、〇〇	同
伯林	十三	火	前八、二六	前八、四四	同
倫敦	十四	水	後四、二〇		
巴里行					
伯林	十三	土	前九、一六	前一〇、三〇	
巴里	十四	水	同六、四五		

二、聯絡乘車賃金

(가)京城—長春 一等 二等 三等
賃金 [illegible]
急行料金 [illegible]
寢臺料金 [illegible]

(나)長春—哈爾賓 金弗 金弗 金弗
賃金 [illegible]
寢臺料金 [illegible]

(다)哈爾賓—滿洲里 金弗 金弗 金弗
賃金 [illegible]
寢臺料金 [illegible]

(라)滿洲里—莫斯科 金弗 金弗 金弗
賃金 [illegible]
急行料金 [illegible]

(마)莫斯科—스톨프드 (伯林經由)
賃金 [illegible]
寢臺料金 [illegible]

「스톨프드」—伯林 圓 圓 圓
賃金 [illegible]
寢臺料金 [illegible]

「스톨프드」—巴里 圓 圓 圓
賃金 [illegible]
寢臺料金 [illegible]

「스톨프드」—倫敦 圓 圓 圓
賃金 [illegible]
寢臺料金 [illegible]

元山青年會幹部 襲擊派對策決議
青年會幹部의辯明은 無骨虫의妄發的言辭이다

元山青年會幹部의非行에對한不平을품고 兩次나元山青年會를襲擊하야 幹部等을亂打重傷케한青年五十餘名은 去十九日午前中某所에會合하야 元山青年會의當日의態度에對하야 左와如한決議를하엿다더라(元山)

社會的不合理에서呻吟하는우리들의살려는解放運動은 一時라도停滯할수업는重大한것이다 그런데元山青年會의幹部들은 自己의惡行을감추고어떠한지運動에對한가장誠意가잇는듯이表示하지마는 內幕에는常히主義的小紳士的根性이瀰滿하야 公益을私腹에充함으로 吾等은그非行을摘發키爲한 모든行爲에對하야 反動的行爲로看做하는것은 實로遺憾이다 그러나에도不拘하고 그들은會自體에聲明이업고 幹部自身으로辯明에努力함은 一般을無視하는것임에딸아 自己의非行을一般에게暗示하는것이다 더욱히 歷史가淺한今日에잇서民衆이 自覺하야運動에잇서 아울러民衆解放運動에잇서 嘉報라고 할것인데 吾等을『맑스』主義的社會運動者라고 自稱하는그들이 公敵云云은實로無骨虫의妄發的言辭이다 以上과가튼것으로보아 그들이 運動者修養의不足한精神을알수가잇나니 이沈滯한態度를떠나게하라면 더욱더욱輿論의喚起와直接鞭撻의手를나리지안홀수가업는것이다

元山人口
十二月末現在

最近元山警察署에서調査한 昨年十二月末現在의元山府人口는 左와如하며 同昨年末에比較하야 朝鮮人二百六十二名이增加되엇다더라(元山)

▲朝鮮人 戶數 五四三一戶 人口 二四三七二名 男 一二四三一名 女 一一九四一名
▲日本人 戶數 一九〇八戶 人口 八〇二七名 男 四〇六一名 女 三九六六名
▲中國人 戶數 一九七戶 人口 八四五名 男 六八〇名 女 一六五名
▲外國人 戶數 一三戶 人口 四九名

平南渡船補助
四個所二千圓

平安南道에서渡船補助費로 今年豫算에計上된金額은二千圓인데 補助할渡船場은如左하다더라(平壤)
▲成川郡三德面餃倉渡船場 ▲成川郡成川面白峴渡船場 ▲成川郡 [illegible]灘渡船場 ▲大同江上流 立岩津

間島八道溝 青年讀書會

間島八道溝大西洞에서는 研究機關이업슴을遺憾으로생각하야 當地有志青年의發起로 讀書會를創立하고 去十日午後七時부터 李子顯氏私宅에서創立總會를開催하고 李炳元氏司會下에會議를進行케되어 規則通過가잇슨後 諸問題를討議하고 任員選擧가잇슨後 同十時에閉會하엿는데 討議事項과 任員은如左하더라

宣川驛業績
昨年中

宣川驛에서昨年一年間取扱한業績을調査한즉 左와如하다더라(宣川)

汽車等級 旅客數 料金
乘車 二等 [illegible]
三等 [illegible]
降車 二等 [illegible]
三等 [illegible]
入場券 [illegible]
特急料五四圓三五
▲手荷物
發 三〇九個
着 四六〇個
▲小荷物
發 五五五八斤
着 二七五三三斤
▲大荷物
發 一八九六噸
着 二三二九噸
▲到着主要物
米 一一九噸 粟 三八九噸
鹽 六八九噸 大豆 六〇五噸
鑛石 一四五噸 牛 一一六噸

金泉勞友革新
委員을總改選

金泉勞友會에서는 去十六日午後八時 金陵青年會館上層에서 革新總會를開催하고 臨時議長黃泰成氏司會下에 順序에딸어 會員點名과 臨時執行部를選擧하고 規約草案을通過한後 執行委員을選擧하엿스며 提案을受理한後에閉會하엿다는데 選擧된任員과 改正된綱領은如左하더라(金泉)

◇執行委員 金仁洙、文仁壽 鄭德田 庶務黃泰成 金命述 敎養金重烈 裴戊龍 白勞李勝根 李雲龍 鍮工車東壽 張永相 調查金春明 李際遠 韓同朴喜洙 朴東根 店員常務委員 金仁洙 文仁壽 黃泰成 車東壽 李雲龍

◇綱領
一、我等은我等의當面利益을爲하야鬪爭하며 必需한知識普及에努力함
一、我等은相互扶助로써團結을圖함

元山公會堂
建築發起人會

元山市民會의斡旋으로 建築하려는元山公會堂은 同會에서左와如히決議하엿다는데

元山公會堂建築에關하야는 元山館에서는陰曆年末關係로 [illegible] 上發起人等의會合과가튼形式을取하고 左와如히新發起人一同에게回章하게되엇다더라

一、株金募集에關하야는 同月十五日以內에 [illegible]

文盲에서 啓蒙으로
日新又日新하는 農村無產同胞
各地勞働夜學狀況

間島八道溝 橫道子夜學 學生三十五名

間島八道溝橫道子에는 農民敎養機關이업슴으로 遺憾으로 생각하든바 地方有志金昌德 金奎燮兩氏의發議로 民夜學을設立하고 男女學生을募集하든中 成績이良好하야 學生이三十五名에 達하엿는데 去一日부터 當地公會堂에서 金奎燮氏가無報酬로 敎授에熱心한다더라(間島)

間島八道溝 舞鳳村勞夜好績

間島延吉縣八道溝舞鳳村에는 從來敎育機關이업슴을遺憾으로생각하든바 當地有志林鎭哲 [illegible]

西宗面勞働夜學

楊平郡西宗面에서는 自動敎養을 夫、敎務理院에서經營하며 李鍾朋 外諸氏가大道敎宗理院을設立하고 敎授에努力한 結果 青年信者가日増月加할뿐아니라 宗理院內에 夜學部를設置하고 附近에잇는無産兒童을 集하야 熱心으로敎授한다는데 成績이매우良好하다더라(楊平)

鳳岡勞働夜學

成北鏡城郡漁郞面鳳岡洞敎陽里

法興洞夜學 授業生三十餘

平北龍川郡東下面法興洞有志年金潤萬氏外五人은 當洞의無産兒童의敎育機關이업슴을遺憾히여겨 昨年十一月부터 自費로 洞內에서 夜學을開辦하고 朝鮮語算術等을敎授한다는바 近日은授業生이三十餘名에 達하야 盛況을呈한다하며 無報酬로 熱心敎授하는 金潤萬氏外數人이 [illegible]

綾州女子夜學

全南綾州長老敎會에서經營하는 幼稚院兒童五十餘名과 女子夜學生三十餘名은 講師金 [illegible] 今年의熱誠敎授下에 每日時間을다토와出席하든바 年末임으로二週日間을

日新夜學好績

全北錦山郡錦山面芝良里에잇는 日新夜學은今般洞里에서創立한 芝良靑友會에서引受하야 維持하게되엿슴으로 今後는內容이一層充實하게되리라는데 方今生徒는 三十名에達한다하며 敎師와科目은 左와如하다더라(錦山)
科目 朝鮮語 日語 算術 習字 漢文
敎師 李承載 柳鍾文 尹鍾聲

楊西一面에 勞夜五個所

楊平郡楊西面에서는 楊西靑年會主催로 楊西面에 勞働夜學을 新院、龍津、漢江、甫谷、兩水 五個里에 設立하고 昨年十一月一日부터開學하엿다는데 成績이매우 好하다더라(楊平)

예서는去十二月一日부터勞働夜學을開催하고當地呂洞金家에서無産兒童二十餘名을募集하야 甲乙二組로分하고 呂月淵氏의義務敎授下에 朝鮮語、算術、習字、作文等을敎授하던바 來三月末에終了하리라더라(忠南)

放學하엿다가今月十日에開學하엿다는데新年부터는一層擴張하야敎授한다더라(綾州)

定平郡에 少年同盟
去十八日創立

咸南新上及其附近에는多數의少年少女가生長하나아직外지其機關이업서一般少年少女는勿論 地方人士들이不遠에遺憾으로생각하든바 去月二十三日午前十時에 同志靑年會館內에서 十餘名의少年少女가少年同盟의發起會를 開催하고 一般少年少女에게 宣言、綱領及規約을通過한後에 執行委員을選定하엿다더라

統營青年 思想團組織
綱領까지發表

統營社會運動의 第一線에서 活動하던 思想團體의 組織을 企圖하고 去十八日午後八時부터當地朝日町金富吳君의書齋에서不期之會로有數靑年八九人이모힌것을 조흔機會로 左記綱領을 決議하고 進行方針에對하야長時間討議한結果會名을『한빛회』라하고 實務를協議하엿다더라

◇綱領
一、吾等은社會科學의研究에努力하자
二、吾等은研究한바思想을實踐에 努力하자
三、吾等은新思想普及에努力하자

高靈青會復活

高靈靑年會는七年前에創立되엇던바 [illegible] 金朴外數氏의誠意로 復活

平北龍川에 腸窒扶斯蔓延
地方人心不安

平北龍川郡地方에는 昨年初秋부터 腸窒扶斯가流行하야 多數한患者가有하다함은 旣報한바와갓거니와 近日外지도依然히 蔓延中에잇서 患者가續出하는 모양이며 東下面法興洞에서는 一名의死亡者外지 잇서附近地方의 人心은 頗히不安中에잇다더라(楊市)

全州矯風理會

去七日同會館內에서 全州矯風會는昨年十二月中에 여러가지問題로 解體가되엇든바 地方有志諸氏는 矯風會의解散을 遺憾으로녀여 復活시길必要를늣기고새로이 矯風會를組織하고 모든任員을改選하는同時에 會務를充實케하며 社會大衆事業에 貢獻할것을目期하고 諸制度를革新하기로한後 去十七日午後八時부터 同會館內에서 革新後第一回理事會를開催하고 新年事業進行을主로하야 會長金聖熙氏司會下에 左記條項을決議하는同時에 保正月中에 擴大會를 開催하기로 決議하고 同十時에 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會員募集에關한件
市內를三區로分하야 社會調查 敎育의 三部任員이 責任지고 募集할것
一、會館修理에關한件
一、月例會開催의件
每月第一月曜日에例會를開催할것
一、任員不參에關한件

星州勞働親睦會

慶北星州勞働親睦會에서는第四回定期總會를 星州面京山洞七一五番地에서 會長裴永夏氏司會로 去十日午後二時부터開하고 任員의 [illegible] 三回以上無故不參하는任員은 解任할것을 決議하엿다 其他事項(全州)

中樞院參議京山洞金德三에게家屋一棟을無報酬로 建築하여주고 金五圓外지 出給하고 全會員 中吉凶事間吊賀는 勿論 星州勞働親睦會라는 旗를揭하기로 決議하고 左記와如히 任員을改選한後 同八時에 閉會하엿다더라(星州)

◇任員氏名
▲會長 裴永夏 ▲總務 朴秦[illegible] ▲書記 白南奎 ▲財務 裴三龍 ▲評議 朴[illegible]淳外四名 ▲掌理 李[illegible]외一名

龍坪素人劇盛況

咸北鏡城郡漁郞面龍坪洞靑年團에서는當地龍坪書堂內에서 該書堂維持를目的으로 去三日晝 素人劇을行하야 一般觀覽者에게 만흔興味를주는同時에 有志諸氏의 同情도만헛다더라(鏡城)

●金川天道敎記念 黃海道金川郡金川面陵里에 잇는 天道敎宗理院에서는 去十八日午前十一時부터 天道敎第四世敎主朴寅浩先生道日記念會를 一般敎徒가 이 盛大히 擧行하고 午後一時에 無事히 閉會하엿다고(金川)

時不利兮其奈何!
牧羊聖者의血史
政治教育에失敗하고 牧羊聖者가되기까지
牧羊成功者 高陽 金麗鶴氏
事業成功者紹介(四)

紅塵萬丈의京城市內를등지고 淸淨한瑞地를擇하야 自己의모든抱負와血骨과怨恨을 오직한가지事業에부처버리어 다른사람이보면 無心한隱遯者로밧게알지안는處地에서 安堵甘心하고잇는 牧羊의聖者가잇다 누구나그를차질때에는 반드시一個村夫나 一個隱遯者로밧게는알지안흘것이다 몸에는弊衣 頭上에는羊毛巾을쓰고 손에는木桶을잡고 발에는草鞋를신엇고 그러나그의胸中에는 十餘年生을回顧할때에는 波瀾과曲折이업다나만헛스며 피(血)의歷史와 눈물(淚)의哀史가아로색여잇슴을 그누구가알것이냐?

高陽郡崇仁面典農里東便에잇는 小岳上그윽한松林사히로 隱隱히보이는牛羊舍의家屋이 뒤을이 張大한市街地를瞰瞰하는듯이 聳立하야잇는것을볼수잇나니 것은卽金麗鶴氏가經營하는 山羊牧場이다 氏는咸鏡南道定平郡出生으로 어려서 극히貧寒한農家에生長하야 二十歲外지漢學을專工하는一方 家業을助力하얏다 兄弟는繁多하고 家族은數十口에達하야 到底히 小作農으로는糊口될 道理가업섯슴으로 氏는幼時로부터 殖產興業에留意한바이섯다

要成功者寫眞添付

그러나 氏는區區히一家에서 腐傷되라는性格의所有者는아니엇다 次次長成함을딸아 遠大한抱負를가슴에품고 鵬程에 오르기를여러번이나꾀하얏스나 初志를貫徹치못하얏다 그러나 가二十一歲에드듸어意를決하고 負笈上京하야 當時中央學校에入學한바 學費로하야만흔苦楚를當하얏스나 百折不屈하는勇力으로 苦學을하야業을畢한後 普成專門法科에入學하야 또다시千辛萬苦로 業을畢하얏섯다

◇

그後氏는育英事業에投足하야 前後九年동안을 第二國民을養育하기에努力하얏스니 卽純眞無垢하고 柔順從容하야 마치어린羊과가튼 兒童敎育에從事하야 立身하라하얏스나 氏는當時日本의監政下에잇는韓國의現狀에 만흔不平을품엇슴으로 言論事事에 모든것이不平兒의憤血뿐이엇다 그럼에當時走狗輩들과는 相容되지안하서 그만育英界도失敗에몰아갓슴으로 奮然히職을辭하얏나니 그러다가다시敎鞭을 집엇슬때에마

本報五個月分贈呈

참三一運動이爆發되매 氏는長久間 積滯하얏든 鬱忿이一時에噴火口가터 爆發되어 三一運動에參加하고 民族運動의急先鋒이되엇섯나 그러나 因하야 氏는鐵窓에서十五個月이나 呻吟하는몸이되엇섯다 滿期出獄을하게되매 사모치는怨恨을부둥켜안고 優遊度日하는몸이되엇섯다 이와가티氏는敎育、政治兩運動에餘地업는失敗를當한後에 斷然히決心한바가잇섯다 그러나沈着하고沈默한氏는 이時期到來를엿보고잇슬뿐에 一次는高陽郡崇仁面昌信學校(彰信學校前身)의招聘을바다奉職하얏스나 이것도暫時安身之處는되지못하고 이에萬端으로생각한結果 牧羊業으로立身하랴는決心을하고 試驗으로羊一頭를購得하야飼養하기始作하얏다 그리하야 自手로八十頭外지飼養하게되어 비로소自信을엇게되매 언제는初志를貫徹키目的으로 距今五年前에 斷然히職을辭하고 牧羊으로業을삼게되엇나

年에는痲痺病으로 만흔失敗를보아 再起의餘力이업게外지되엇스나 氏는여기에도屈치안코 우준히奮鬪하는一方 痲痺病根治에對하야硏究를거듭한結果 解得하게되엇다(痲痺病은夏節長霖時에發生하는것으로 治療法은獸醫學에도업다)

◇

이와가티하야 自手로써根滅을圖하며 一牧場을經營하야 드듸어五年이지난 今日에는 無類의牧羊場을만드럿스니 京城近傍에는 鮮日人을勿論하고 羊을本位로한 牧場은氏一人뿐이오 또京城市內外의羊乳供給은 氏一人의掌中에잇거니와 처음에는 本人은朝鮮人의無智에因하야 道의地方에 [illegible] 이아니엿스나 誠力으로 [illegible] 가업서 使用치안혀거의 [illegible] 하고 朝鮮人은 羊乳去來는 二百有餘戶나되고 羊의數는 二百餘頭에達한다 그리고 年利益이 七八千圓에達한다하고 總資產이 五六萬圓에達한다

아! 氏는敎育에失敗하고 政治運動에失敗하야 그러나 牧羊으로써 成功者가되엇다

選者評

氏의半生의苦心은 政治的으로 社會的으로 [illegible] 이 되엿스나 牧羊業으로서는 畢竟成功者가되엿다 (投稿者高陽郡神道面朴KO生)

尹愼榮氏紹介文

蕩敗한나머지에 一家의生計를 도라보지아니하고 남이 着眼치못하는 點에 힘을 써서 여러가지 失敗를 겪은 가치가 잇는 것은 斯界의 先驅者다운 面目이 보인다 [illegible]

投稿繼續受理

映畵小說
白衣人 【三】
李慶孫 作

『서울서 공부가 하고 십흐냐?』하며 긔호는여러번 물엇스나 아무는 자긔의 질문에 대답이라고는

하는만마되 긔호는 자긔가하라는 뜻을 알고 자긔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잇섯던가를 생각하고 한숨을 쉬엇다 [illegible]

『그럼 나가 할게요』

『네—네암니다』

가는 기생의 뒤를 따라 나가든 자 신문사에 돈을 벌어 가겟다고 떠돌든

편집부장은 긔호를 자긔옆에 세우고 그가 말하엿다

『수원 사람요?』
『왜 돈푼이나 잇나는—』

명이 『켜커번 밤에 명월관에서 수원 사람이라고 부신적이 잇지요?』

『참—』

라고 역시 며잇다 얼골이 귀공자도 생기기는 하엿스나 아직조 람이요 자긔의 『조흔 분』

편집부장은 자긔 『신임하는 사람이요』

『야!』 『야!』 『야!』

『그애 보고오셧소?』

『네 막 이리로 오는데……』

아닝기엇다

며 편집실 또아의 고리를 잡

가는 츄츄니 츠 그릴 듯이 쿵쾅 니

가잇는벼이다 이층으로 올라

가는 직공이 들엇다하면그는 누어라 왓것이냐

『흥 다섯번째로구나』

『얼마나 말을하엿세요』

긔호는 가만히 물엇다

『자긔말은 한 삼만원이라도 엇어수잇나지만 그야 누가 알우』

『사람이 엇너요? 말은 확실하엿세요?』

『좌우간 가보시구료 자긔가 자진한것이니가 우리보데엔 마든지 낸다는거야 아니바 들수잇소』

하는 편집 누장 말은 자긔 얼골에 떠도는 근심을풀어노라는 방책으로도들렷다 『망해가니 구하는것이아니다 내 는니 밧는것이지요』로해석 하라다가 『아직 취사가 그러케 되엿슬리는업서』하고 스사로 위로하엿다

『수원 시내이겟서요?』

『가만이계십시요 여긔 주소가잇스니』하며 부장은 자긔의 서랍을연다 긔호는 어머님、 게 『안녕히계시러 가십쇼 휼청면을 예상하고섯스랴니 련상의 움직임은 어머니 누의 못생부하라온아우 하고 다른편으로 올켜되여 생활에 대한 거벼운 붐안이 또다시 자긔의 가슴을 어둡게한다

鄭─ 李 ─ 一 申 [illegible]

「……」이런활동이엇다

청에는 긔령이를 모려움될작정으로만 련다라정하는 바람에 오는 긔자는한업이다 밤하자면 서네사람은 비단 긔자일반하여

「그러면 어머니 혼자계시게」

「나야 친척이업게젠신네상 니시지하여주실이엇다

「글세 그럼엇더케 올나와 닛도록하지요」하고 관이나하는 어머니의대답니

승락은 긔호는 악가의그장면을 다시 생각하며 광화문으로걸어 간다

「월급이래야 즐것이업제……」

「굴세 그러나 엇더케 하여보지……」

드므니 다달이 모자리기가쉽

긔호는 그가려 혼자서 중얼 대며 찬바、올 가르고잇다

수자각 너눈나당터에는 행인의 자취가 드무는데 예하고 갈녀 다라드는 면차가 더한층찬긔운 을모라다 퍼트리는 갓나 멀ㄷ 곳종에 소사잇는것은 방송국의 쇠뭇대 아침해에 반사가되 ㄸ번 적! 뚝번쩍!

열시가 넘엇기에 그리지안 어도 이러서부라는관에 신문사 규사가『얼는오라』는편지를가 지고왓것다 엇재서 얼는오다는 지알수납는일이나 지금 긔호의 종종 거름을치는 리유는편집부 장에게서 그편지를바든 까닭이 다

월하며 사는이에게는 생긔

잇다고한다

지금 또이와가튼 심부름을 하게되는것은 반듯이 리사회 에서 긔 긴 한숨을쉬게된까닭 이아닌가 할때에 가슴이조 금 뜻금하여진다

만약 자긔들의 머화 지내

지금 안서 잇는 긔자 들중에 서네사람은 비단 긔자일반하여 오든 긔자는한업이다 밤하자면 이시문사에는 여러의미의 광포 자이니 긔호의 신문사는긔호가 인사한후로도 단 이의 간에벌써 세번 사재나 편집국소리가 벗처 엿섯다 그소리가 멋처라고우편 미루토하고 신즘엇게 모든종종 히장사원인는 머리난 굴그며시 원스러운 대답을 아니하게되면 외사안은 돌을켜되ㄱ 그런때마 다 지공들은 그림을보앗습니다 의얼골로 몌안이며 두려누어 서 아러가라 넘을 부르다돌시반 애쓰 것은 사에서 중요시하는 긔자들이다 책보를 내면진지 를 과멋해가못되는서생이라─하여 도 조흠한 경험업는 兎들이 베스、죽돌겹는 이의 압헤 안시 어서

『사실 즉 커히사는……』하 고긴 ㄱ몽을하게되니긔맥힌는

沍寒과酷風모른別世界 觀衆은無慮萬五千突破

모진치위와사나운바람에행인도듬은어젓만 혼잡한회장엔울으는땀씻기에겨를이업섯고 당일에매매된출품들의가격만실로수천여원

空前의盛況니룬聯合빠사初日

작일석간에긔보한바와가티중앙청년회와 본사주최뎨이회 련합녀학교련합빠사대회는예정과가티이십일오후일시부터시내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개최되엿는데이날은아츰부터살을에이는모진바람과살에사모치는혹독한치위에 거리에다니는 사람의거름자조차 평일에 비하야 드믈엇건만 이모임에대한 인긔는 치위에영향되지안코뜻밧게아츰부터 구름가티모혀드는 남녀노소의관중은 각일각으로 붓고넘처서 장내는실로히 입추의여디가업섯스며 사람과 사람사이를 비비고다니는 옷가튼 녀학생들과 젊은안낙네들은 이마에흐르는땀을 수건질하기에 겨를이업서서 사나운바람이 불어닥치는 바갓세상과는 완연한 딴세상을 이루웟것다 이리하야 군데군데 아름다운 옷밧과도가티 눈더기 잇는 어엽분진렬대(陳列臺)압헤는 천계급을농라한 남녀로소의관중들이 어엽분처녀들의 정성과정든 손으로만든 세상에도 아름다운가지가지출품을압헤노코 흥졍(競爭)의소리를련발하여서시간가는줄도모르고우드머니서잇섯스며진렬상품직히는각녀학교의 옷가튼처녀들은 관중의답사하는 상품주문에 눈도뜰새도업시 평화하고도 단락한긔분이농후한중에 쉬일업시 가는시계의바늘이 정각인 오후여섯시를가르치니 빠사대회 뎨일일은엇철수업시 종막을 고하야조수가티 밀리는관중들은 들어가지도못하고 명일을기하고 다각기를아갓스며 평화한중에도 큰래에돔은 일대성황을 이룬빠사대회뎨일일은이로서 끗을막오니 이날의총입장자는 무려일만오천명을 돌파하엿스며 각녀학교의상품판매금액은수천여원의 다액에달하엿다

◀……련합빠사대회뎨일일회장광경……▶

◇혼란하고도 실용뎍인 출품의 가지가지와 바늘 못하나 세울수업시 혼잡을 이룬 관중◇

各校當局者感想 ◇今回聯合빠사를보고

顯著한發展 培花 兪智穎氏談

작년보다 모든것이 진보된것이 한번보아서 곳알겟습니다 그리고작년보다 독특하게 늬히는조흔편물가튼 실용품이 만히진것닙니다 그리고각학교에서 경쟁으로로력하여서 모든것이장족의발전을 한것은대단이 깃분현상닙니다 어쩌한뎜으로 보든지 이러한공동긔관은영구히보존해야할줄밋습니다

實用을爲主 進明 野口氏談

귀사의 로력으로써 각녀학교를 사회일반에게 소개할 긔회를어든것은대단히 조흔일이요 또고마운일입니다 이번에 내학교에서 사치스러운것보다는될수잇는대로 실용적의 물품(필요한)을 내기에 노력하얏습니다 그리고 이압흐로도 그러한 방침으로나가랴합니다 지금의 각학교의진렬해논것을 한번보니까대동소이(大同小異) 하나 그러나다각기특색이잇서보이어서 대단히 조타고 생각합니다

兒童品爲主 同德 兪鍾春氏談

이번회의특색은무엇보다도실용품이 만히진것닙니다 그리고물건이 팔리는것을 볼것가트면 어린아이의 용품과족기가튼남자용품이 만히팔리는것닙다 이번에어든 경험으로 래년에는 더한층실용품을만히만길작정닙니다

編物이特色 貞信 方信榮氏談

내학교에서는 작년에 참가못하고 금년에처음으로 참예를하엿는데 경험이업서 퍽련려하엿더니 해노코보니까 퍽재미잇서요이번에우리학교에서는 아동의녹의 개량을뇌 로하야 아동용품을 만히만드럿습니다 그리고그것이 대단잘팔녓서요 그외에손수건하고면불이우리학교의 특색이라면 특색이겟지요 엇잿든올에어든 경험으로 래년에는 한번훌륭하게 해볼작정 임니다

時代의要求 梨花 申瀅貞氏談

모든것이 작년보다 장족의진보를한것 갓습니다 그리고작년의어든경험으로다각기특장을발휘한것이무엇보다도재미잇섯습니다그리고작년에비하야비교뎍실용품이만히진것은벌서시대의요구라하겟지요 래년에는 또어떠케될는지 그것도 또한흥밋년동안의 변천을보아서 하지안호면아니되겟습니다 실용품이만허진것이 시대의요구인것가티 이러한 빠사대회도 역시시대의요구이니까 어되까지 계속할필요가잇는줄압니다

新式을加味 文高 孫貞圭氏談

이러케 해보면은 역시재미가만혀요 물건이 케쇼잘팔려요 그리고작년에 비하야 실용품이만히진것이좀 나흔것이겟지요 손님의취미도 적당상이 된것가타요 내학교에서는실용품이면서도신식을 가미하기에 노력하얏습니다 래년에는 또엇더케될는지요그것은나직생각하지도안엇습니다

年一年發展 槿花 金美士氏談

내학교 생도들은 나희가어린데비하면 다재조가 특별한것갓습니다 그리고 작년에해보경험이잇서금년에는 훨신힘이 될들엇서요 그리고작년보다 실용품이 논것이 무엇보다도 좃습니다그리고 유감되는것은 내학교의설비가부족하야서 학생들의 재질을 마음것 발휘식히지못하는것이야요 그러나 래년 는올년보다래후년은 명년보다 며 나지겟지요

愉快를不已 槿氏 金淑童氏談

빠사대회에 각녀학교에서 출품한것을보고 어쩐논 실용품을 만히 만기려는것이조코 사치한것은 조치못하다고 말합되는만은 내생각가태서는 사치한것도잇서야겟고 실용품도 잇서야할줄압니다 그리고 빠사대회에 출품하기에는 다소간은난한것도 잇섯스나 그러나 각학교가 경쟁적으로 출품한것을 볼쌔에는 대단이마음이유쾌합니다 그리고 구경 신손님이

遜色이全無 淑明 金永順氏談

돈이업서서 사고싶흔것을 사지못하는것이 퍽유감이야요 빠사회를본 사람으로 누구나다늣겻는바는 조선녀자의 기술이 타국에 비하야 조곰도손색이업는것 임니다 그리고집안에만 가첫든녀성들이 이러한때에 수수스러운것을 롬고하고밧게나와서 일하는 긔회를엇게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깁붐니다 그리고 각학교가 련합하여서 조금도 틈쌍이업시 사이조케해나려오는것이 무엇보다도 좃습니다 이와갓흔 더욱더녹로럭하여서 조선녀성의 특질반재질을 세계에 자랑하게되기를 희망합니다 엇잿든 조선녀성의재능은 세계의어면나라사람들만 하고라도손색이업슬것갓닙니다

各女校出品 五千點追加

밤아홉점까지시간연장 오천여뎜을추가해출품 今日은夜間에도公開

공전의 대성황리에 빠사대회뎨일일이 끗을맛엇다함은 별항보도한바와갓거니와 시간이 짧음으로 인하야 뎨일일에는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행한관중이만엇슴으로 뎨이일인 이십이일에는 특히시간을 연장하야서 오젼열시부터 오후아홉시 까지 개최될터이며 또빠사회에 참가한각녀학교에서는출품하얏든 상품을 뎨일일인 이십일일에약 오할이상을 팔부분아 버렷슴으로 미리예비하야두엇든 수예품(手藝品)약오천점을추가하야더 한층더가보외분만관중에게수용하리라고일일의성적으로 미루워 보드래도 마지막날인데 이일이 얼마나 성황될것은시금부터예상하기 어렵지 안흔바 동대회를 관찰코져하는 인사는녹침해시기전에 아못조록 일즉이 와서긔회를 노치지 안는것이조켓더라

御留學次로 王殿下渡歐

동경에게신 리왕뎐하와 동비뎐하께서는오는사월이십륙일에어탈상을하신후오륙월경에비뎐하를동반하시고 구주에류학하시기로 하시엿는데 재등총독이 동경으로건너가겟슴으로 그써에 리왕직장관의후임인선과 동시에 결뎡하리라더라

耐寒飛機着陸

지난십구일오젼 여덜시에 일본태도에비행대(太刀洗飛行隊)를 출발하야 신의주(新義州)로 내한(耐寒)비행을 연습하려 가는 사긔(四機)중 일긔만동경하오다섯시십분쯤에평양항공대에착륙되엇는바 이십일에 신의주를향하야출발하엿다더라(평양)

日女盲電車負傷

이십일오후두시 남대문안 뎐차정류소(南大門內停車停留所)부근으로 향네문행뎐차가진행중소방서(消防署)압구로 우리나온 일본인녀자 맹인(盲人)이 뎐차에 다닥치어 누상하엿는데 피해자는 즉시세부란쓰병원에 수용하얏다고

수日 第二回全朝鮮女學校聯合빠사大會

第二日

◇陳列品 針工品、刺繡、編物、其他手藝品各種 (入場料十錢)

自午前十時至午後九時 ‖ 鐘路中央青年會館에서

朴南坡北滿에突現 重要人物과協議

일반은비상히중대시한다고

다년간 해외로놀아다니며 민족운동을 위하야만흔 활동을하든 박남파(朴南坡)는근일에모중대계획을 세워가지고 북만주에와서각누단긔관과 중요한 인물을 자주무슨회의인지 비밀리에 협의하고 물루중국 남방으로나려갓다는데 동방면은 매우중대시한다더라(봉천)

正租詐取한 債鬼는被訴

남에게맷긴벼를 속히여가저갓다

충남론산군구자곡면금곡리신현영(忠南論山郡九子谷面金谷里 申鉉永)은 그동리에구장으로잇스며 자산도 상당하다는바 종래치부하든수단이더욱긱박하야「장리벼」와「장변노리」등으로라 업을리식으로 근동사민들에게 대부하야왓나는데그동리오현영(吳憲泳)이가 삼작년음셥월에 일금이십원을 오분장변에어더씻는바 그익년 유삼년에는 긔한이지낫다는 핑계로매일 청화가티졸으든신데 오씨의 소유가옥이잇슴을 긔회로녀겨 다시일금이십원을 대부하여주고 수백원시가의 건물을 매매계약와지바든후 만약긔한이 넘으면 제것을맨든다고 위협을하고 그해유십월에 일금오십오원을 갑핫스나 오분장변의돌어간 리식이다못되야 오원얼마가 남엇섯다가 다시삼원을 더어더쓴일이 잇섯는데 갑작이추수에 벼가남어잇는것을본 신씨는 엇더케ㅂ다가고사욕심이생기여서론산군 채운면와남리김익수(論山郡彩雲面臥南里金益洙)의 집에다가 오현영이가 동리의 도됴를주고 남은벼를 두엇든바 신씨는지난 십일월 이십칠일경에 그곳을 차저가서 오현영이가 빗이 내게잇서서맥긴벼를 넉섬차자가라하엿다고 허언의거짓말을하고 감쪽가티 자긔집으로 옴기여간후만일이나되야 오씨는몰려서 네가 김익수에게맷긴벼를차저왓다함으로 의외의사실도 분개한오씨는 지난십칠일 강경경찰서 사법계(江景警察署司法係)에서 긔해위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얏다더라(강경)

仁川窃盜

인천(仁川) 부송림리(松林里)오십륙번디문순택(文淳澤)이라는 당년 륙십삼세된늙은이는 지난십팔일밤에 시내 한석뎡(韓石鼎)삼십사번디빈는 하전태랑(河田泰太郎)의집에잠입하야 사십오원가치의 의복등을 절취하여 가지고 십구일오후에 그의 장남 문정현(文正鉉)이에게 식히여 시내신뎡(新町)재등(齋藤)뎐당포에가서 잡히려다가 눈치쌔른경관의시선에 발견되야 건괴문순택는바곱인천경찰서에서취됴를당하는중이라고(인천)

一千名馬賊團 敦化襲擊을計劃

두목쌍룡부하의마적단이

간도녕안현(間島寧安縣)디방에 근거를둔 마뎍(馬賊)두목북해룡(北海龍)일파약팔백명의일대는 지난십이월 하순액목돈화(額穆敦化)두현의경계인장광재령(張廣才嶺)에 이동하여잇는중두목을 쌍룡(雙龍)이라는 일파약칠십명의 일단과련합, 여 유력정월초순경 순경의 경비미약한 틈을타서돈화현성(敦化縣城)을 습격할 계획을 세워목하수명의 밀정을 동현내에 파견, 야당니 박자본가와 군경(軍警)의 경비상황을탐색중이다더라(간도)

京元線에 排雪車를運轉

금년의대강설에혼이나서 朝鮮鐵道史上初有

경원선고산석왕사(高山釋王寺)간의선로는 십사일밤이래로 미증유의강설과 대폭풍으로도 인하야 렬차가겨우 진퇴유곡의 상태에빠져 보조긔관차(保助機關車)를 사용하고또는삼사대의 긔관차를 련결하야도 오히려운뎐의 자유를 엇지못하엿슴으로렬도국에서는 련결차량수를 감하고 운뎐회수를 증가하야 겨우렬차의 운뎐을 계속하얏는데 이긔회를 당하야 제설쇄빙렬차(除雪碎氷列車)를 운뎐하기로 하얏는바 동렬차는단행긔관차(單行機關車)에간단한 설비를하야 렬차를 운행하이권에천속력으로써 선로상의 적설을업도록 하는것으로 이러한설비는 조선렬도 사상의 초유라더라

地價請求한다고 無理毆打致傷

◇鳳山炭鑛日人의非行 피해자는진단마타고소

황해도봉산군 동선면귀남리(黃海道鳳山郡洞仙面龜南里)에 사는 조호중(趙鎬仲)(三○)은 지난십구일오후한시에 당디봉산탄광사무소(鳳山炭鑛事務所)에잇는일본인원등정웅(遠藤正雄)과 일대격투가잇서 중상을 당하얏는바 피해자조호중은 곳의사의진단서를어더 고소를 제긔하리라는데 이제그젼후내용을 듯건대 봉산탄광의 석탄운수를 시키기위하야지난십이월일부터신봉산역(新鳳山驛)이 설치되엇는바그부디(敷地)로개인들의토디를 강제로 매수하는중에 피해자조호중의땅 륙천여평 이십삼평을 가액 ○천사백십일원십삼젼에 매수하기로지난십일월에불성문매매계약(不成文賣買契約)을하엿는바 그것을 바드려몃번이나 독촉을 하엿스나 종래내이지안타가 지난십구일오후에도 역시 탄광사무소에가서 셩갑을 달라고하즉 사무보든 보사람이욕연히 조호중을 란타하야그와가티 중상을시킨것이라는데 그밧게도 만호사람들이 아직까지영갑을 밧지못하엿스며 최두순(崔斗淳)이란사람의영은다 수의허락도업시사용을하엿다고분반의비난이매우놉니더라(사리원)

女子夜學은休學

懇談會討議가問題되여 사실업는것을토의하여 선생세명이다출근안해

지난십삼일에 경남고성(慶南固城)에서는 사회단톄신간당회(社會團體新幹會)가 가몹리며 모든문뎨를 토의하던결과 일반문뎨에들어가모출석뎐표로부터 고성녀자야학회(固城女子夜學會)서생의 불미한일이잇서동야학이여 그사건본인은 물론이어니와 그외천두상(千斗上) 원필년(元必年)량씨까지 이러한말장만코 문뎨만흔 야학회를 못가르치겟다는긔연외라 또천두상씨는 아모험업시 배척당하는 서생을 두정하야서라도 출근안하겟다함으로부득이 야학의운명이 위태하니 이것을부서할수업다고 뎨의하야 토의한결과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되엇섯는데 이것이 문뎨가되여 문뎨해결되도록까지잠시휴학을하게되엇다더라(고성)

凶惡한人肉商

경남진주면 평안동사십이번디 부작 긔국삼(崔國三)은 사천군곤양면 소녀유인상습자로 사천군곤양면(泗川郡昆陽面)출생인 문보추(文保秋)(二二)와 진주군평거면(晋州郡平居面)출생인 서우금(徐又今)(二二) 두소녀를 고묘히 유인하야 부산부내 어느유곽에 예기로팔려다가 부산경찰서 형사에게 발견되고 아직도 저집에 는소녀들이나 유인감금하여 두엇다하며 지금까지 십수인의 소녀를 유인한혐의 유인상습자로 취됴중이라더라

言爭끗헤 傷害致死

가해자는구금

전남화순군도곡면월곡리(全南和順郡道谷面月谷里)량제묵(梁濟默)(二四)은 지난구일오후일곱시경에 동리문창환(同里文昌煥)을 자긔집으로오라하야 싸홈을하든중 천과 량제묵이가 문창환의 불두덩을 발길로차서 그즉석에서 혼도하야 자긔집으로 돌아가서신음하다가 그익일에는 세명이위급함으로 피해자의처박씨(朴氏)는 다 죽어가는 자긔남편을 등에업고 가해자의 집으로가서 밧에누이고 사람살리라함으로 가해자 량제묵은 황망급급히 본주재소로 가서 싸홈한 결과상해됨을 말하고 화순공의(和順公醫)를 다려다가 응급치료하야 달라함으로 당국에서는 시급히 공의를 다려왓스나 치료도 밧지못하고 결국은 십일오후네시경에 사망함을 딸하 문씨친족수십명이 모혀 상례위험함을본 동면주재소에서는 가해자 량제묵을 즉시 압송한바 그싸홈한원인은 듯건대 피해자 문창환의 사촌처남 동면쌍옥리(同面雙玉里)박성화(朴成化)의 소유산에다가 가해자 량제묵이가 암장을 하엿다고 수일을 싸와온싸닭이라더라(능주)

正友會宣言에 一齊히贊成

간도사개단톄가

해내해외(海內海外)에서 문뎨가되여잇는 사상단톄정우회(正友會)선언문(宣言文)에 대하야 간도룡정촌 사회단톄 동우동맹(同友同盟) 간도로농회(間島勞農會) 독서회(讀書會) 동만청년총련맹(東滿靑年聯盟)의련합집행위원회(聯合執行委員會)에서는 지난십오일 장시간토의한결과 찬성(贊成)의뜻을발표 하엿더라(간도)

安圖縣에도 略奪을肆行

마뎍두목만텬홍(滿天紅)의인솔한약이백명의 일단은 안도현홍긔하부근(安圖縣紅旗河附近)상류디방에 근거를두고고동하(古洞河)부근으로사조출몰하면서 자산가를 협박하야 피복, 식량품과 마필등을 강탈중임으로당디주둔포격대는 고동하 보위단(保衛團)과협력하야대경계중이라더라(간도)

安城에傳染病

요사이일긔가더웟다치웟다하며 비도왓다 눈도왓다하야 긔후가 불순함으로무슨병마(病魔)가 류행되는모양인데 경긔도 안성읍내(安城邑內)에는발진시부쓰(發疹窒扶斯)란전염병이 발생되야지난 십구일 안성 경찰서에서는 의생제주임류경부(柳警部)이하수삼경관이 출동하야전 귀환자(患者)의집에 교통차단(交通遮斷)을시키고그부근을소독(消毒)하는동시수백매의방역선전문(防疫宣傳文)을시내에배포하야 일반의주의를 각별히주엇다더라(안성)

靈武地方大雪 漁船十隻遭難

자세히모르나인명은무사

함남령무(咸南靈武)디방에는지난십사일오후구시경부터눈(雪)이나리기 시작하야 십오일까지 싸지지 일시도 쉬지안코 모진쪽풍에석겨왓슴으로 렬차도 일시불통되엇는대륙대(六臺)에서는 명태어(明太魚)잡으러 나간 어선(漁船)이 열두척이나 풍설(風雪)에 몰리어 어대로갓는지 행방이 불명되엇슴으로 배는흔집에서는 망망한해변에서 하눌만치어다보며 눈물로 지내든바 지난십팔일저녁에야 겨우 여섯척이강원도(江原道)해안에서 파선되엇다는 뎐보가륙대에 도착되엇다는데 사람들은 다행히 무사한모양이라하며 남어지 배들은 아직까지 소식이막연하다는바 자세한소식은 아직알수 업스나륙대신포(六臺新浦)는갓득이나 금년에명태어획불황(明太漁獲不況)으로 디방인심이흉흉한가운데 십여척의 어선이난을 당하게되엇슴으로 어인자는 물론이오 부근경제상태가 극도로 고갈되어 매우근심중이라더라(령무)

光熙町에火災

소녀가불에데어

이십일오후남시이분경에 시내 광희뎡(光熙町)이뎡목백사십팔번디직공 임경운(任敬雲)의 집온돌부엌아궁지에 잇던 나무로부터 불이이러나써 선집평가한채와 온돌두간을 전소하고 동삼오분에 진화하얏다는데 이써에 임경운의셋재딸순이(順伊)(十)는 얼굴과 및두손을만히데엇다더라

兩凍死者

일긔졸한으로

지난십륙일 폭풍우가 잇슨후부터 일긔가졸한(猝寒)되자 그날밤열시경에 부천군부내면(富川郡府內面)대정리(大井里)부근에서 주소씨명이불명한 약사십이삼세된 노동자한명이얼어죽엇는데 그동리에사는 일인고야주삼랑(高野周三郎)이발견하야 인천서에고발한결과 동서에서는 시톄검안을마친후 부내면장조구현(趙九鉉)씨에게인도하야 매장케하엿다하며 십구일오젼세시경에는 인천부 룡강뎡(龍岡町)내번디부처 담벼밋헤 또한주소씨명이 미상한약 삼십칠팔세된 로동자한명이 그한에 못이기어 죽은것을발견하고인천경찰서 좌등(佐藤)외사와가티현장에 출장하야검시한후 인천부청에 인도하야 매장하엿는데 천가우사람에모니몸에가진물은 네라고는 아무것도업다고(인천)

樂園의丁抹 歐羅巴갓든길에 (卄四)

方台榮

體操와遊戲 丁抹一般學校의敎育方針은知育보다도 體育을ㅅ位로삼는것은 이미긔록한바와가트나 每日最少限度도한時間以上은 비가오나 눈이오나거릿김닙시 가장活動的體操를 반듯이實行한다 十餘年前까지는獨逸式軍隊敎練法을採用하엿스나 이것을全廢하고今日은새ㅅ운丁抹式體操를考案하엿다 이體操를爲하야는各學校가 聯合會를組織後 一般에努力한結果 現在는一般社會와 家庭에까지普及되어其成績은 매우良好하고進步는顯著하다 去一千九百十五年巴里에서開催된萬國體育大會附屬競技會에參加

◇……「헤로하트」國民高等學校……◇

한丁抹學生男子二十人과 女子十六人은新丁抹式體操를하야最高名譽를어덧는데이로누러新丁抹式學校體操는 그名聲이世界에 놉히날리게되엇다

思索과科學 丁抹各學校의特色이라고할만한것이또한가지가잇다 곳先生은各生徒로하야금모든事物上에對하야 그理由를가장明白히判斷할能力을엇게하기爲하야 各樣各色의方法을案出한다 곳思索力養成에非常히努力한다 某校長의말에依하면 各國學生보다 丁抹學生은 一般事象을단지 겻흘로만아는것이아니라 思索力과判斷하는힘을가지고잇다고말하엿다 實事物果 事物의眞理를判斷하는結의眞理를理解하는能力은 다른나라의一般學生보다 매우進步된것을알수잇는바 이제가르치는各學科를例擧하면 다음에와갓다

國民高等學校 初年度 地理 歷史 社會學 物理 生理學 內國史 數學 家畜學 理及飼養 土壤學 農具學

第二年度 地理 歷史 世界文學史 心理學 萬國史 生物學 幾何 代數 [illegible]

敎 實習 體操 唱歌

또ㄴ學校에依하야各特色이잇는學科를가르치는바 그中에는農村會計 園藝等을敎授하는 學校도잇는데 授業時間은 午前八時부터午後七時까지 거의繼續되며 各期間은 夜間을만히利用하야 敎授한다 學資授業料와寄宿料를合하면 一期間三百三十「쿠로나」와其他實料及寄宿料도外十「쿠로나」를要한다 家庭科에는五月부터七月까지夏期講習會가잇는바그學科는地理 博物、數學、書取、圖畫、裁縫、體操、唱歌等으로授業料는每月七十「쿠로나」寄宿料百五十「쿠로나」合計二百二十「쿠로나」가든

各視察者證言 各國敎育家其他名士는爲始하야丁抹을視察하는사람은 만히이상한생각을가지고丁抹을視察하는듯하나 한번그學校를視察할것가트면國民高等學校가丁抹農業啓發上大貢獻을준것을發見하고確實한信念으로써批判한다 其一部를摘錄하면 아래에와갓다

科學者 故「홀드코라」氏의批評하기를 恰似히土地의肥沃이라는것은그播種한種子에對하야가장適當함과가티國民高等學校에서對하식히는 訓練는모든事業에對한 確實한基礎를주고또한將來農民에對하야 가른就業을 來케한다 다시協同運動의精神이傳播된點에 對하야말하기를 丁抹農民이 小規模인工場에서 劣等한牛酪과「치쓰」를製造하는것보다는協同的運轉을完成하야一致한行動을한結果 最上의牛酪과「치쓰」를製造하기까지사이에어든것은「크랜드위히」氏의決心과能力을 그가태어난當日의提唱한새로운哲學에從來된結果이다라고語하엿다(比蘭韻)